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1차 구술

1. 구술자: 이재정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4월 27일
5. 구술장소: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6. 구술분량: 06분 2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2002년 대선후보 단일화 파기와 대통령 당선

구술자 : 밥 먹고 나와서 동대문으로 가니까 아니, 지지 철회했다는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 중앙당사로 다 옮겨서 와가지고 여의도로 이제 옮겨서 와서 야, 그때 후보도 다시 다 들어오시고. 이걸 뭐 초상집이죠 뭐. 내일 투핀데 이제. 이게 오늘 밤에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 뭐 거기서 지금 뭐 난리법석이 나고 논쟁이 벌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주류는 뭐냐면 정몽준을 만나서 다시 설득해야 된다, 지지 철회를 철회시켜야 된다. 노무현 후보만이 아무 소리 않고 가만있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벌떡 일어나십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고 역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건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냥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다가 내가 아마 그때 그 발언을 했을 거예요. 대통령, 지도자가 될 사람은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게 책임인데 지금 정몽준의 행위를 보면 가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 후보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결정이 나서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게 그럼 노 후보하고 아니 정대철¹⁾이하고 나하고 둘이 노 후보 모시고 간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후보의 차에 아 타고 간다, 그래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후보 앉으시고 정대철 그 옆에 앉고 수행 앞에 앉고 기사 앉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고 차는 붕 떠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재촉을 해가지고 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갔더니 막 노 후보님 차를 타고 막 떠나시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정대철이만

1) 당시 선대위원장이었음.

남은 거예요. 저도 차가 와야 가니까, 제 차가. 그래 도착해서 정대철이 보고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이, 못 만나고 그냥 노 후보 간 거다.’ 결국 못 만나고 당사로 돌아와 가지고 밤새워서 라면 하나씩 끓여먹으면서 그 당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대책을 논의하는데) 길이 있어야지 길이. 내일 투픈데. 그래 밤을 새워가지고 결론 낸 것이 투표날 아침이지만 아침에 노무현 후보의 입장이라고 하는 걸로 방송 인터뷰를 하자. 이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했지만, 이거에 대한 진의는 모르지만 뭐 제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이 방송 인터뷰를 하자, 이 안을 가지고 대통령 맥을 간 겁니다. 새벽 아마 네 시쯤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갔더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내 속으로 ‘야,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다 잠도 못 자고 밤 새워서 고민을 했는데 저러실 수가 있나.’ 아 그러더니 이 어른이 이제 까운을 입은 채 탁 등장을 하셔서 앉으시자마자 폭탄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정치 못 하겠네요.’ 그게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쪽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지지 철회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그럼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그거를 서로 간에 가서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호소하거나 무릎 굽히거나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정확한 거예요. 지지 철회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뒤집을 거냐 하는 의미죠.

‘아,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느냐, 국민들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국민들의 의혹은 풀어야지 않겠느냐, 이게 선거에 임하기 위한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전제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죽 늘어놨지만 노 대통령은 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간곡히 얘기하니 그러면 가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인제 결론을 내고 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당사로 와서 결국 인터뷰를 하시고 그날 선거에 이제 각자 다 들어가게 된 거죠. 나는 꿈 같어요. 한편의 드라마 같애. 그 지지 철회 아니, 명동 유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이, 이 대국민 인터뷰 한 것까지가. 정말 나는 한편의 드라마 같고. 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각본 없는 드라마였죠. 근데 각본 없는 드라마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위기의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거 아니냐, 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후보부터 후보를 조력하는 선거본부의 임원들까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국민적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고, 결국 나는 선거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구술자 주요 이력

- 1944. 충북 진천 출생
- 1969.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1971. 대한성공회대학교 성미카엘신학원 졸업
- 1984.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대학원 종교학 석사
- 1988. 캐나다 토론토대학교대학원 신학박사

- 1972.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사제서품
- 1972. - 1980. 대한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서기
- 1977. - 1980.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주임사제
- 1977.06 - 1981.10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이사
- 1988.09 성공회대 부교수
- 1988.10 - 1994.08 성공회신학대 학장
- 1994.09 - 2000.05 초대, 2대 성공회대 총장
- 1997.11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 1998. (사)남북농업발전현력민간단체 이사장
- 1999.03 국민정치연구회 이사장
- 1999.09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 1999.09 국민회의 신당창당 발기인
- 1999.11 - 2000.01 새천년민주신당 총무위원회 위원장
- 2000.01 - 2000.04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전국구)
- 2000.12 새천년민주당 연수원 원장
- 2002.06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교육특보
- 2002.09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본부장
- 2002.12 새천년민주당 당개혁특위 위원
- 2003.10 새천년민주당 탈당
- 2003.11 열린우리당 창당

2003.11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

2004.10 - 2006.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장관급)

2006.12 - 2008.02 제33대 통일부 장관

2009.09 - 성공회대 석좌교수(2012년 현재)

2000년 12월~2001년 11월 새천년민주당 연수원장 시절 16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당원 교육 강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교육특보, 유세본부장 등을 맡았다. 참여정부 들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거쳐 2006년 12월부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남북정상 회담 진행과정에 참여했다.